

격려사

생명의 푸른 물결이 온 산하에 번지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. 만발한 꽃들이 내 앞에만 머무르지 않고, 그 향기가 세상에 널리 퍼지기를 발원하는 ‘세상을 향기롭게’ 설립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.

21세기를 넘어서며 과학과 경제의 발전은 물질의 풍요라는 편리한 삶을 제공하였지만, 동시에 불균형과 불평등에 기인하는 정신의 빈곤과 인성의 소외라는 큰 병폐가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. 경제의 규모가 커지는 것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마저 고통인 사람들과는 별개의 사안이 되어가는 듯합니다.

부처님은 자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. ‘모든 이웃에게 공양하는 일이 부처님께 공양하는 일이고, 모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이 부처님을 기쁘게 하는 일’ 이라고 하셨습니다. 이 땅의 모든 이웃에게 헌신하고 기쁨을 주는 일이 곧 자비행입니다.

고통의 이웃에게 배려와 존중은 조화로운 공동체를 이룩하는 일이며 부처님을 기쁘게 하는 이웃을 위한 공양입니다. 이러한 자비행의 실천이 정여스님의 원력과 다름이 없기에 큰 격려를 보냅니다.

‘선을 실천하는 생활이 이루어지도록 바르게 노력하라’는 말씀을 일상에서 실천하여 하나하나 우리의 마음을 모으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.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일은 내 마음 하나에서 시작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무량한 공덕인 것입니다.

‘세상을 향기롭게’ 하는 첫 걸음으로 정신의 삶을 회복하는 무궁한 발전을 바라며, 항상 부처님의 자비로움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.

불기2556년 6월 8일
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